

재현의 정치학:
미원주민 문학에 나타난 문화 민족주의와 혼종주의
- 린다 호건의 『파워』와 레슬리 마몬 실코의
『의식』을 중심으로 -*

박 경 서
(영남대학교 / 강사)

Park, Kyung-seo.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Cultural Essentialism and Cultural Hybridization in Linda Hogan's *Power* and Leslie Marmon Silko's *Ceremony*.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63-85.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cultural essentialism and cultural hybridism regarding Native Americans' cultural identity in Linda Hogan's *Power* and Leslie Marmon Silko's *Ceremony*. The two novels have a common feature that the Omishto in *Power* and Tayo in *Ceremony* seek their identity respectively during the journeys of their lives, but Omishto is inclined to cultural essentialism and Tayo cultural hybridism. To be concrete, it examines assimilationism in assimilation policy and resistance against it in two novels. And then it analyzes cultural nationalism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Omishto and Ama Eaton in *Power*, and examines cultural hybridism through medicine man Betonie's story telling in *Ceremony*. (Yeungnam University)

Key words: cultural essentialism, cultural hybridization, Omishto, Tayo, Betonie

I. 서론

미국 원주민문학이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초 ‘할렘 르네상스’로 상징되는 미 흑인문학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늦은 편이다. 1950년대 이후에야 주목할 만한 미원주민계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¹ 미국소설사에서 “미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7111).

¹ 1891년 소피아 캘러헌(Sophia Alice Callahan)의 『숲의 아이 와이니마』

주로 백인들의 눈과 펜을 통하여 재현되면서 단순화되고 억압된 존재, 스스로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백인들의 편견과 욕망이 투사된 타자로서 존재했던 것이다”(김진경 76).

미국사회에서 백인이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소수 인종, 그 중에서 수탈과 억압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미원주민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문학적 재현은 대부분 백인들에 의해 왜곡을 겪으며 묘사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재현에 있어 관찰자나 서술자의 의식이 현실적 조건에 의해 굴절될 수밖에 없다. 알폰소 오르티즈(Alfonso Ortiz) 또한 “서구 문명의 관점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인디언과 백인의 관계사는 백인들이 인디언의 과거를 그들 자신의 역사, 그들 자신의 내부적 담론 안으로 동화시키려고 시도해 온 역사이다”(혹시 & 아이버슨 21)고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원주민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 시선으로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원주민에 관한 담론이 백인 위주로 진행되어왔다는 뜻이다. 예컨대 백인들은 식민지 시대의 자연관을 ‘울부짖는 황야’(howling wilderness)로 재현해 왔고, 원주민을 ‘고귀한 야만인’으로 그려왔다. ‘황야’는 유럽계 미국인들의 문화의식 속에 뿌리박혀 있

(Wynema: A Child of the Forest)가 미 원주민 여성 작가가 펴낸 최초의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1944년에 양크턴 수족(Yankton Sioux Tribe) 출신의 인류학자 엘라 델로리아(Ella Deloria)가 인디언의 삶의 모습을 그린 『인디언의 이야기』(Speaking of Indians)를 출간해 인디언 구술전통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인디언 행동주의가 부활한 ‘인디언다움’을 표방한 다양한 원주민계 작품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8년 발간된 플러처 수장작인 카이오와족(Kiowa) 출신의 소설가 스콧 모마데이(N. Scott Momaday)의 『새벽으로 지은 집』(House Made of Dawn)을 기점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르네상스’(American Native Renaissance)라 일컬을 만큼 원주민 문학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동안 백인들의 시선으로 재현되며 왜곡되던 원주민계 문학의 약진과 더불어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말하기 시작했다. (김진경 153-54, 혹시 & 아이버슨 404 참조)

는 넓은 개념으로 문명과 야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유와 연관되어 있다. “이 개념에 따라 유럽 출신 이주자들은 인디언들을 아메리카 황야의 일부, 이를테면 말살하고 몰아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정체 를 드러냈다”(혹시 & 아이버슨 22-23). 크레이그 워맥(Craig S. Womack)은 ‘인디언성’(Indianness)의 낭만화에 반대하면서 “인디언성은 사실 현실 적 경험과 동떨어져 있어 오히려 유럽중심주의 논리에 복무하는 음험한 ‘정치행위’이다”(359)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백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분 법적인 도식에 갇힌 미원주민문화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만 재현될 뿐 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원주민(Native American) 문화의 진정한 재현을 찾기 위해 두 명의 혼혈 미국작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작가는 “인디언과 백인의 상호관계를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게 다루는 새로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는 또한 인디언의 입장에서 백인과 인디언 간의 역사적 만남을 바라보며, 인디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혹시 & 아이버슨 20)는 오르티즈의 의견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원주민 문학을 대표하는 혼혈여성작가인 린다 호건(Linda Hogan)과 미원주민 푸에블로(Pueblo)족 출신의 레슬리 마몬 실코(Leslie Marmon Silko)가 각각 쓴 『파워』(Power)와 『의식』(Ceremony)을 통해 미원주민에 대한 백인의 왜곡된 재현을 전복 시키고 ‘원주민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객관화된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미원주민들이 백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멸종되고 억압되었음에도 원주민 미국인들의 삶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고집한 때문일까, 아니면 탈식민 주의 이론에 따른 문화 혼종화 때문일까? 본 연구는 『파워』와 『의식』에 문화 민족주의와 혼종주의가 각각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함의되어 있는지

를 밝힌다. 『파워』에서는 인디언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민족주의적(문화 본질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노정되어 있고, 반면 실코가 “푸에블로 문화는 배제보다는 포함을 추구한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기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여 포함시키고자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Gattuso 6)고 밝히기도 했듯이, 『의식』에서는 탈식민주의 담론에 입각한 문화 혼종주의가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를 밝힌다. 다시 말해 위 두 작품을 통해 미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쟁점인 문화 민족주의(문화 본질주의)와 문화 혼종주의를 비교분석한다.

II. 연구의 배경 및 구성범위

먼저 ‘문화 민족주의’와 ‘문화 혼종주의’의 정의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문화민족주의’는 국가가 공유문화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민족주의의 한 형태이다. 문화민족주의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존 허친슨(John Hutchinson)에 따르면 “문화민족주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정치적 민족주의와는 다르게 ‘개인과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기체적 실재’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Hutchinson 122).”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성(nationality), 민족됨(nation-ness), 민족주의(nationalism) 등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 문화적 조형물이라고 주장하며 민족을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라 정의한다(전제안 144에서 재인용). 서구적 민족을 지칭할 때 흔히 민족국가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의미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원주민의 문화 민족주의를 지칭할 때 서구적 개념의 민족이 아닌 부족적인 공동체적 개념을 의도한다.

그리고 문화 혼종주의는 탈식민주의의 핵심적 개념으로 문화와 전통은 꾸며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이론대로, 다양성과 혼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빌 애쉬크로프트(Bill Ashcroft)와 헬렌 티핀(Helen Tiffin)도 탈식민주의 사회의 혼성적인 리얼리티 하에서 식민지 이전 단계의 문화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시도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109). 탈식민주의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문화 혼종화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생겨난 자연스러운 역사적 과정으로 이질적인 두 문화는 결국 혼종 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피지배문화(식민지문화)가 지배문화를 적대시하고 대립과 갈등을 가지게 되면 억압과 지배라는 새로운 식민주조가 생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두 문화 간의 융합과 융화를 통해 역동적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연구의 순서는 첫째, 미원주민 문학의 두 가지 연구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파워』와 『의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백인동화정책과 그것에 대한 동화주의와 저항주의를 비교한다. 둘째, 『파워』에서 표범을 죽인 아마 이튼(Ama Eaton)의 재판과정을 통해 미원주민을 바라보는 백인 문화의 시각을 아감벤의 ‘포함-배제’와 ‘호모 사케르(Homo Sacer)’²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의식』에서 주인공 타요(Tayo)의 치유에 있어 전통적 인디언 주술사 쿠시(Ku'oosh)와 혼혈인 주술사인 베토니(Betonie)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적 본질주의와 문화 혼종주의를 살펴본다. 셋째, 『파워』에서 작가는 문화 혼종주의보다는 문화 본질주의를 택했다는 근거를 확인하고, 『의식』의 경우 토착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확산적 공동체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는 혼종화 과정을 고찰한다.

² ‘호모 사케르’는 고대 로마의 법체계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생명의 분류 중 하나다. 직역하면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이고 ‘별거벗은 생명’으로 번역된다. 호모 사케르는 “희생물로 바칠 수 없음의 형태로 신에게 바쳐지며 또한 죽여도 괜찮다는 형태로 공동체에 포함된다.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지만 죽여도 되는 생명이 바로 신성한 생명”(아감벤 175)이다.

III. 미원주민 문학의 두 가지 연구방향

오늘날 미국 원주민 문학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친화적인 인디언의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생태학적인 관점의 해석이다. 20세기 중엽부터 미국 원주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관심은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와 맞물려 미국 원주민 문학에 재현된 미원주민의 삶의 방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작가들은 인디언의 생활방식과 자연관에서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를 전복시켜 여성의 치유능력과 창조적인 능력을 통한 생태위기를 해결하려는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의 연구가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원주민 작가들이 그들 부족의 자연친화적인 전통성과 문화성을 통해 물질주의에 매몰된 인간성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은 그들 문학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파워』와 『의식』 역시 생태학적 관점의 우수한 소설이라는 평가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알렌은 호건의 작품들 대부분이 “인디언과 자연의 생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최근 작품의 경향은 대지와 사람들 간의 영성, 그리고 시대적 이슈들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Allen 168)고 말함으로써 호건의 작품들을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호건의 역사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방향의 글쓰기는 자본주의 문명이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억압받아온 미원주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생태학적 삶을 바탕으로 한 생태중심사회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원주민 문학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은 이들 문학에 나타난 미원주민의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동화정책에 힘입어 미원주민 순혈족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미원주민들의 삶과 문

화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주민계 영문학 작가들이 원주민의 정체성을 다룰 때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문화 민족주의’와 ‘문화 혼종주의’이다. 이들 작가들은 오랜 세월동안 왜곡되고 상실된 그들 고유의 전통과 가치관에 대한 회복 및 성찰을 통하여 원주민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원주민이 미국사회에 동화되는 현실 속에서 부족의 정체성과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혼란을 겪게 되었고, 또 혼혈화 과정에서 미국사회와 원주민사회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 되어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미원주민 작가들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등에 힘입어 백인의 지배담론에 대한 인디언의 저항담론을 구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원주민들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미원주민의 문화민족주의를 회복해야 하느냐, 아니면 문화적 혼종주의로 나아가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다시 말해 백인의 동화정책에 맞서 원주민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문화 본질주의와 미 원주민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 정체성을 문화적 혼종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문화 혼종주의로 나아가느냐하는 문제이다.

문화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원주민의 본래적인 자연과 전통적인 언어에서 오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문화 혼종주의와 구별되는 원주민만의 삶의 방식인 자치정부를 요구하는 종족(부족)주의적인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이들은 혼종주의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비역사적이고 탈정치적인 것으로 비판한다. 반면 혼종주의자들은 모든 정체성은 혼종의 결과이고, 오늘날 원주민의 정체성 역시 이미 백인문화와 혼합되어 있으며, 원주민만의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차이를 부정하는 자기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문화 민족주의를 가리켜 지배담론의 위계질서를 답습할 위험이 있는 고립된 정체성이라고 공격한다.

바바라 쿡(Barbara J. Cook)이 호건을 치카소 족과 영국계 백인 사이의

혼혈이라는 유산으로부터 형성되는 “문화적 전이대(cultural ecotone)” (Cook 1)에서 글쓰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듯이 백인문화와 원주민 미국인 문화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그녀의 작품 속에는 백인 문화와 원주민 미국인 문화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이 드러나 있다. 『파워』에서도 작가는 백인 문화와 원주민 문화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충돌 양상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풀어나간다.

그리고 『의식』은 “전쟁과 왜곡된 부족 문화로 인해 상실된 인디언의 정체성을 전통적 이야기의 재생을 회복하는 과정”(Dirlik 5)만을 그린 소설은 아니다. 오히려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문화적 본질주의를 거부하는 포스트 식민주의 사회에서 문화 민족주의는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강자모 617)이라는 문화 혼종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족주의자 엘리자베스 쿡-린(Elizabeth Cook-Lynn) 역시 “다른 성공한 원주민 작가들처럼 실코도 주류 독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멀어졌을 것”(27)이라 언급하며 실코의 비역사적 혼종성을 비난한다. 그래서 실코는 탈민족을 지향하는 지구화 시대에 공동체와 혼종성을 지향하는 작가로 평가받아 미원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혼종주의자로서 반민족적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파트리샤 클락 스미스(Patricia Clark Smith)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어머니는 네브래스카(Nebraska) 출신이다. 나의 어머니는 나한테 매우 소중한 존재이지만, 네브래스카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 네브래스카는 나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나의 생활과 존재의 관점으로 정의되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Smith 144)라는 호건의 발언을 그의 문학에 적용한다면 『파워』가 미원주민 역사와 정체성이 의해 삭제되거나 왜곡된 해석에 반대하고 다시 기록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확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코는 『의식』의 서문에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치유방법은 좋은 의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식』이

타요의 ‘의식’을 기반으로 적개심을 극복하고 백인문화와 미원주민 문화 사이에 분열이 아닌 화합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IV. 여정을 통한 오미슈토와 타요의 각기 다른 정체성 찾기

『파워』는 서로 대립되는 두 세계관인 전통부족사회와 백인 문화권 속에서 자신의 길을 정립해나가는 오미슈토(Omishto)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장과정을 다룬 소설로 화자의 자서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타이가(Taiga) 부족의 열여섯 살 소녀 오미슈토는 백인문명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소녀이다. 그리고 『의식』은 주인공 타요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타요는 백인과 미원주민 사이의 혼혈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백인과 인디언 두 사회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루이스 오웬스(Louis Owens)의 입을 빌리자면 “문화의 경계선 위에서 부유”(정순국 828에서 재인용)하는 ‘경계인’과 같은 존재이다. 두 소설은 두 주인공이 백인문화와 인디언 문화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다가 어떤 정신적 발전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실현을 한다는 공통된 플롯을 가지고 있다. 『파워』에서 플로리다 세미놀(Seminole)족의 한 씨족으로 알려진 표범부족을 모델로 가공의 타이가족을 중심으로 오미슈토와 표범여인이라 일컫는 아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작품에서 오미슈토는 인디언 전통을 지켜나가는 아마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백인이 미원주민들에게 저지르는 억압과 폭력의 관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확립으로 연결시켜나간다. 『의식』 또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고향에 돌아와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인공 혼혈인 타요가 백인중심문화와 인디언 전통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그의 정신적 여정을 통해 그것을 극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워』의 경우 아마가 오미슈토를 인디언 전통사회로 인도하듯이, 『의식』에서는 주

술사 벤토니 노인이 타요의 깨달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4.1 동화주의와 저항주의

미국 원주민 문학에서 원주민의 정체성을 다룰 때 먼저 고려해봐야 할 것은 원주민들이 백인 동화정책에 흡수되느냐, 아니면 그것에 맞서 저항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동화정책은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나 생활양식 등을 말살하고 자신들의 언어, 체제, 문화에 맞도록 피식민지인들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기존의 앵글로-색슨계 미국인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파워』에서 타이가 부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백인 사회에 편입하려고 애쓰는 그녀의 어머니와 “코카콜라와 영화를 포기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Power 216) 원주민 부족사회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오미슈토의 언니가 동화주의의 대표적 인물이다. 오미슈토는 그녀의 엄마를 가리켜 자신들이 역사 속 어느 곳에 멈춰서 있으며 자신들이 계속해서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마를 질투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엄마는 내가 아마와 함께 숲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아마가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엄마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엄마는 아마 이튼이 늙은 부족 여성들처럼 전통적인 풍습을 신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아마의 그런 믿음은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백인으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아마를 더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Power 20)

오미슈토는 미원주민의 삶의 상황을 삶의 터전을 잠식당하는, 정글에 사는 늙은 표범의 삶과 동일시한다. “표범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계부 힘으로부터 벗어나려하는 나와 같다. 표범은 또한 상처 입

은 땅과 같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 셋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작아졌고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Power 69). 오미슈토는 그녀의 엄마와 아마를 비교한다. 그녀의 가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코카콜라를 마시며 문명생활에 젖어있다. “그들은 나만 빼고 같이 있다.”(Power 94) 반면 오미슈토는 아마를 가리켜 “백인 세계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타이가 인디언처럼 늙어간다고 생각했다”(Power 23).

참전은 동화정책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병역은 정부의 정치적 토대와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 인디언들은 병역을 통해 그들 자신을 미국시민으로 합법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Holm 43). 지배문화의 동화정책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배문화의 우월성과 식민지문화의 열등성을 강조해 그런 인식을 피식민자들에게 내재화한다. 『의식』에서 백인문화에 동화된 인물의 전형은 록키(Rocky)이다. 그는 순수한 원주민 혈통이지만 자신의 전통적 유산을 비하하고 백인사회에 맹목적인 믿음을 보인다. 록키는 “바깥 백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타요는 록키가 의도적으로 부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할머니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몰아붙이며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펼쳐 보여주었다”(Power 51). 록키의 동화주의의 또 다른 예는 소 사육에 있어 환경이나 인디언 고유의 방식을 부정하고 소 사육법에 대해 백인들이 쓴 책만을 신봉하고 있다. “그 책들은 과학자들이 쓴 거예요. 그들은 식용 소에 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Power 76). 록키는 백인 가치 체계를 우월한 것으로, 인디언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비화해 결국 미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요와 록키의 친구인 에모(Emo)는 저항주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의 개인적 저항주의는 록키의

동화주의와 다를 게 없다. 아래 인용문은 에모의 객관화되지 못한 개인적 저항의 형태를 보인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우리 인디언들이 이 거지 같은 말라빠진 땅에서 살아야 되겠어? 좀 더 좋은 것을 즐길 자격이 있잖아. 돈도 흥청망청 쓰면서 말이야.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다 그들이 가져갔어. (...) 우린 그자들의 전쟁을 그자들을 위해 치렀어. (...) 그런데 그자들이 모두를 차지했어.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안 그래? (...) 그들은 우리 땅과 모든 것을 빼앗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백인 여자들을 빼앗아 와야 되지 않겠어!” (Ceremony 55)

에모는 백인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상실감과 패배감을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있다. 타요는 “에모는 틀렸어. 모두 다 틀렸단 말이야.” (Power 25)라고 한탄함으로써 에모의 저항주의에 반대한다. 타요는 록키의 동화주의도 에모의 저항주의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록키의 동화주의는 현실적 조건에서 자신들의 슬픈 모습을 투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고, 저항주의도 개인적인 저항을 불러올 뿐, 지배문화에 대한 올바른 비판적 사고가 아니고 오히려 지배서사에 흡수될 뿐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코는 록키와 에모를 동화정책에 흡수된 원주민으로 묘사하지만, 타요를 백인의 지식과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동화정책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인물로는 그리고 있지 않다. 그는 백인 동화주의에 맞서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전통을 복원하려는 인물이 아니다. 실코는 그를 물리적 저항이 아닌 미원주민의 ‘이야기하기’를 통해 백인담론을 전복시키고 미원주민 문화를 회복하려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런 형태를 두고 로버트 파커(Robert D. Parker)는 “인디언 문학의 가장 분명한 특징”(4)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타요가 정신적 여정을 통해 겪고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미원주민 담론은 서구의 억압적인 동화주의와 원주민의 저항주의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2 오미슈토와 타요의 정신적 치유 과정

아마는 오미슈토의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작품의 초반부에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던 아마는 두 세계에서 갈등을 겪는 그녀를 원주민 부족의 영혼의 세계로 이끌게 되는데, 이는 전통문화와 백인문화 사이에서 그녀가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심리적인 과정이 된다. 오미슈토는 타이가 부족의 소녀로서 백인중심의 서구 사회의 교육을 받고 서구적 생활 방식을 누리며 살지만 문화적 정체성으로 갈등을 겪는 경계인이다. 그녀는 타이가 부족 출신의 아마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며 원주민의 문화와 정체성에 서서히 눈을 뜬다. “아마는 우리들이 사는 곳의 바깥 경계선 부근에서 자연스럽게 산다. 아마는 자연, 영혼의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Power 17).

그러는 사이 아마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타이가부족의 현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해 그들의 토토크동물인 표범을 희생양으로 죽이게 되고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미슈토는 서구사회의 세계관 대신 원주민 전통사회의 세계관을 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미슈토는 아마가 표범을 살해한 사건의 진정한 발단은 바로 원주민에 대한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직시한다. 표범의 살해는 아마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다. 아마의 표범 살해는 결국 백인의 폭력과 편견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디언 부족사회는 물론이고 백인사회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아마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오미슈토는 자신의 부족이 처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 재판 장면은 이 소설의 중심 플롯으로 아마에 대한 판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백인의 지배문화가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경계선을 그어 배제시키는 단면을 보여준다. 호건은 현대사회에서 인종, 성별, 빈부 차이 등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경계

선 굿기를 해 사회 지배계층이 물리적인 힘으로 약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그들의 패배를 합리화시킨다고 주장한다(Ackerberg 13).

오미슈토가 법정에서 인식한 중요한 사실은 백인들을 가리켜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생존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의 자손이다. (...) 그들은 스스로를 통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Power 138)고 인식하는 대목이다. 오미슈토는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저지른 원주민 학살을 떠올리며 서구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서구인들의 파괴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아마는 법정에서 “내가 표범을 죽였어요. 내가 살해 했단 말이오”(Power 135)라고 외쳐 보지만 재판관과 변호사는 범죄동기를 밝히지 않고 아마를 정신이상자로 판결해 그녀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 아마의 재판과정에서 “서구인 중심사회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참여할 때 백인들은 그 원주민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해 상호간의 대화에서 배제시킨다. 동시에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호명함으로써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대화에 실제로 포함시켰다고 합리화한다”(Peters 115). 피터스의 이런 발언은 아감벤이 상정한 ‘호모 사케르’와 ‘배제와 포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정에서 백인들은 아마와 오미슈토를 세밀히 관찰한다. 증인으로 나온 오미슈토는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사람임을, 그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처음으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Power 132). 이것은 아감벤이 말하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미원주민을 미국사회에 포함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예외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이 법과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비상사태(예외상태)”(아감벤 318)를 만들고 그 예외상태로부터 다시 법칙을 만들어 예외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호모 사케르’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백인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미국 백인사회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그 사회로부터 배제시켜 ‘호모 사케르’로 전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이다.

『의식』의 경우에는 타요가 여행을 하면서 몇몇 원주민들이 기억하고 회상해내는 구전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복원해 내고, 나아가 미원주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려한다. 타요가 여행을 하면서 정신적 혼란과 방향을 치유하는 사람들로는 원주민 주술사인 쿠시(Ku'oosh), 또 다른 원주민 주술사인 베토니, 조사이어(Joshia) 외삼촌, 타요의 할머니, 정신적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나이트 스완(Night Swan) 등이 있다.

타요의 여정에는 원주민들이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원주민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의 이야기다. “먼 옛날, 상황은 달랐어.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지. 그때만 해도 마술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Ceremony 94)라고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와 “우리를 계속 살도록 해주는”(Ceremony 45) 조사이어 외삼촌의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백인의 체제에 원주민을 흡수하려는 동화정책에 대해 원주민의 전통적 이야기를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백인과 인디언의 오래된 대립을 대체하는 주술사 베토니의 이야기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에 국한해 세 번째 이야기만 다루기로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쟁참전 후 인디언보호구역으로 돌아온 타요는 전쟁 피로증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는 백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원주민의 전통의식을 통해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한다. 타요는 라구나족의 늙은 주술사인 쿠시 노인을 찾아 가 “전 아파요. 그러나 적을 한 명도 죽인 적은 없어요. 손도 댄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뭔가 좀 해주세요. 귀환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Ceremony 36)라고 호소한다. 주술사 쿠시는 인디언의 전통적 방식으로 타요를 치료하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치유의식을 포기하고 떠나버린다. 노인은 “자신이 항상 두려워해왔던 것, 옛날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던 그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타요에게 확인시켜주었을 뿐이었다”(Ceremony 38). 여기서 쿠시는 “이질

적인 문화와의 교류에 의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 민족중심주의의 무력함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강자모 61)는 지적은 타당할 수 있겠다.

타요의 정신적 구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주술사 베토니 노인이다. 베토니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백인과 미원주민간의 오래된 대립관계를 해체하고 대체하는 변화된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는 백인의 도둑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것이네. 분노, 좌절감, 자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와도 말이네. (...) 그러나 타요, 우리는 파괴자나 도둑과 싸울 만큼 싸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싸웠어. 그런데 우린 아직 살아 있네. (...) 인디언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듯이 백인들도 다 재고 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과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Ceremony 127-28) 베토니의 이야기는 타요에게 백인의 역사를 침략으로, 인디언의 역사를 패배의 역사로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의 이야기는 탈중심화 과정이 곧 배타적 민족 중심주의로 이어질 필요가 없으며 백인과 민족문화의 교배와 교류로 인한 변화의 능동적 수용야말로 식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한때는 예전과 같은 방식의 의식으로도 세상을 다루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하지만 백인들이 오고 난 후부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네. 이제 새로운 의식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해. 그래서 난 의식을 나름대로 좀 바꾸어보았네.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불신감을 드러내지만 난 이러한 성장만이 의식을 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믿네.” (Ceremony 126)

베토니는 상업주의와 기계주의에 빠져 백인문화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인디언의 전통문화만을 고집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자도 아니다.

작가 실코가 베토니를 이런 관점으로 상정해 놓은 근거는 그가 들려주는 ‘백인탄생설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베토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상이

시작되기 오래 전에는 백인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마법의 힘을 자랑하던 한 인디언 마법사에 의해 백인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온 몸이 털로 덮여있는 물고기의 배처럼 하얀 백인들”(Ceremony 135)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건 마법의 장난이네. 마법사들이 세상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인을 이용할 뿐이네. 내 말을 좀 들어보게. 백인이나 그들의 기계나 그들의 믿음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무엇보다도 백인은 인디언 마법사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네”(Ceremony 132)라고 말하면서 백인탄생설화에 대해 한 편의 시로 설명하고 있다.

먼 옛날

태초에 이 세상에는 백인이 없었네.

(…)

얼마 후 일이 일어났다네.

이 마법사들이 한곳에 모였단 말이네.

(…)

이 마법사는 그들에게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 할 뿐이었는데.
“이야기 해줄게.”

(…)

바다와 동굴들

언덕의 어두운 동굴들 안에 있는

하얀 털로 뒤덮인

물고기 배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러더니 그들은 땅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러더니 그들은 태양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러더니 그들은 식물과 동물들로부터 떨어진다.

그들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볼 때

오직 물체만을 본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죽은 것.
 나무와 강은 살아 있지 않고
 산과 돌도 살아 있지 않다.
 사슴과 꿈은 물체이다.
 그들은 생명을 보지 않는다. (Ceremony 132-35)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의 주장대로 베토니 노인의 서사는 “백인들을 창조한 인디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소극적이고 자기비하적인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 인디언 스스로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Dirlik 19)는 의미이다. 백인 담론의 희생자로 전락한 록키와는 대조적으로 베토니는 타요에게 인디언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백인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 융화를 바탕으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베토니의 이야기는 첫째, 순수한 미원주민의 민족적 전통(본질주의)에로의 회귀보다는 변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한다. 둘째, 지배-피지배관계를 해체시켜 동등한 가치창조를 강조해 민족 간의 적대감을 버리고 공동운명체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타요는 여정의 마지막에 가서 어느 우라늄 광산 근처에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 파괴자들이 모든 인간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해 계획한 운명 덕분에, 그리고 만2천 마일이나 떨어진 도시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삼켜버린 죽음의 원형 고리 덕분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Ceremony 246)고 인식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왔고 우리는 땅의 것이다”고 되뇌는다. 마침내 그는 저항주의자 예모에 대한 살해육구를 극복하고, 파괴와 패배라는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문화의 차이를 서로 간에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인식하게 된다. 반면 오미슈토는 타요와는 달리 아마의 뒤를 이어 타이가부족으로 들어가 표범여인이 될 것을 결심한다.

나는 늙은 부족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킬리 습지 위에 있

는 경계선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언니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그곳 부족 사람들이 늘 우리가 본고장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본연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 언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고 우리는 이전처럼, 우리에게 의도된 대로 살 것이며, 그것은 평화롭고 강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Power 216)

오미슈토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의 본질적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부족사회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가 오미슈토를 지목하여 부족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후계자로 교육시키는 것과 오미슈토가 다시 부족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는 삶의 행위를 두고 원주민 전통사회의 정체성의 복원을 꾀하고 문화 본질주의의 환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미슈토는 아마와 함께 한 표범사냥의 사건을 통해 희생, 조화 그리고 균형이라는 원주민 고유의 가치관을 깨닫게 된 결과 백인사회로 다시 편입하지 않고 타이가부족을 택하고 아마의 뒤를 이어 표범여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V. 결 론

『파워』는 백인 문화와 부족사회의 전통문화의 충돌을 통해 인간중심적인 현대문명이 어디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호건은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성별, 인종, 빈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가 둘로 갈라져 경계화되고 사회 지배계층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의 패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배계급인 백인들이 아감벤이 말하는 예외상태를 끊임없이 만들어 인종, 성별, 계층 사이의 경계선 긋기를 하는 절망 속에서 오미슈토가 미원주민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으로 회귀한 것은 미원주민의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문화 본질주의로 나아가고자하는 호건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호건은 『파워』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집한 것은 아니다. 호건

은 주체를 인정하려면 타자를 또 다른 주체로 존중해줄 때 비로소 스스로의 진정한 주체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영혼이 없는 문명세계가 산산이 부서져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Power 189)이라는 걸 우려해 “이 세계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Power 189)는 아마의 인식과 행위는 곧 서구문명을 배척하고 자신의 원주민 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 현재 위험에 빠져 있는 서구문명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식』에서 타요는 앞서 주술사 베토니의 ‘백인창조설’의 서사를 들고 두 문화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식의 필요성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 결국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성적 사회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담보한다. 타요가 백인 사회와 인디언 부족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혼혈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또 그를 인도하는 베토니 또한 혼혈로서 백인과 인디언 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화시킨 인물로 설정해 놓은 점은 결국 타요가 이질적인 두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문화 혼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작가가 미리 상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파워』에서 호건은 백인문화에 종속될 수 없는, ‘인디언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원주민의 독자적 문화야말로 미국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문화 민족주의를 그렸다. 반면 『의식』은 백인담론에서 억압되어온 원주민의 전통적 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하되 그것들을 식민지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 회귀하는 배타적 민족 중심주의가 아닌 현대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동등한 가치로서 백인문화와 서로 교류와 교배를 함으로써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호건의 문화 민족주의와 실코의 문화 혼종주의 중에서 어느 쪽이 미원주민 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그들의 삶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관해서는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았다. 다만 백인 문

학의 글쓰기와 읽기의 재현이 그들의 문화전통으로부터 견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미국원주민 작가들의 글쓰기도 자신의 문화전통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단순히 문화민족주의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만일 백인서사대로 두 문화 간의 혼종화 작업이 이루어 질 때, 미원주민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가 과연 동등한 가치로 백인 문화와 당당히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하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인용 문헌

- Agamben, Giorgio. *Homo sacer.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Trans. Park, Jin-woo, Seoul: Saemulgyul, 2008.
[아감벤, 조르조.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역. 서울: 새물결, 2008.]
- Ackerberg, Peggy Maddux. "Breaking Boundaries: Writing Past Gender, Genre, and Genocide in Linda Hogan," *SAIL: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 6.3 (1994): 7-14.
- Allen, Paula Gunn. *The Sacred Hoop: Recovering the Feminine in American Indian Traditions*. Boston: Beacon Press, 1992.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 New York: Routledge, 1989.
- Cheon, Kye An. "Silko and the Writer on the Time of Globalization: RE-reading the Political Thought in *Ceremony*." *American Fiction* 17.3 (2010): 139-71.
[전계안. 「지구화 시대 작가로서의 실코-『의식』에 나타난 정치성 다시 읽기」. 『미국소설』 17.3 (2010): 139-71.]
- Cook, Barbara J., ed. *From the Center of Tradi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Linda Hogan*. Boulder: UP of Colorado, 2003.
- Cook-Lynn, Elizabeth. "The American Fiction Writer: Cosmopolitanism, Nationalism, the Third World, and First Nation Sovereignty." *Wicazo Sa Review* 9.2 (Autumn 1993): 26-36.
- Dirlik, Arif. "The Past as Legacy and Project: Postcolonial Criticism in the

- Perspective of Indigenous Historicism.” *American Indian Culture and Research Journal* 20.2 (1996): 1-31.
- Hogan, Linda. *Power*. New York: Norton, 1998.
- Holm, Tom. “The Militarization of Native America: Historical Process and Cultural Perception.” *Social Science Journal* 34.4 (1997): 461-95.
- Hoxie, Frederick & Iverson, Peter. *Indians in American History*. Trans. Ryu, Si-ju. Seoul: Yeongrim Cardinal, 2000.
[후시, 프레더릭 & 아이버슨, 피터 엮음.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 인디언, 황야, 프린티어, 그리고 국가의 영혼』. 유시주 옮김. 서울: 영림카디널, 2000.]
- Hutchinson, John. “Cultural Nationalism and Moral Regeneration.” Eds. John Hutchinson & Anthony D. Smith. *Nationalism*. Oxford: Oxford Up, 1994. 122-31.
- Jung, Sunkug. “The Identity of Contemporary Native Americans Represented by Various Stories Leslie Marmon Silko.”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6.5 (2010): 823-50.
[정순국. 「실코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현대 미국 원주민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56.5. (2010): 823-50.]
- Kang, Ja Mo. “A Postcolonialist Reading of Lesilie Marmon Silko’s *Ceremony*.”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3.3 (1997): 609-27.
[강자모. 「레슬리 마몬 실코의 『의식』: 포스트 식민주의적 글읽기」. 『영어영문학』 43.3 (1997): 609-27.]
- Kim, Jin Kyeong. *Recovering the Silenced Voices*. Seoul: Dong In, 2009.
[김진경. 『지워진 목소리 되살려내기』. 서울: 동인, 2009.]
- Peters, Jesse. “‘Everything the World Turns On’: Inclusion and Exclusion in Linda Hogan’s *Power*.” *American Indian Quarterly* 37.1-2 (2013): 111-25.
- Silko, Leslie Marmon. *Ceremony*. New York: Penguin Books, 1977.
- _____. “Foreword: The Indian with a Camera.” *A Circle of Nations: Voices and Visions of American Indians*. Ed. John Gattuso. Beyond Words Publishing, Inc., 1993. 4-13.
- Smith, Patricia Clark. “Linda Hogan.” *This Is About Vision: Interview with Southwestern Writers*. Eds. William Balassi, John F. Crawford, and Annie O. Eysturoy. Albuquerque: U of New Mexico Press, 1990. 141-55.

Womack, Craig S. "Theorizing American Indian Experience." *Reasoning Together: The Native Critics Collective*. Eds. Craig S. Womack, Daniel Heath Justice, and Christopher B. Teuton. Norman: U of Oklahoma P, 2008. 353-410.

kspark@ynu.ac.kr

논문접수일: 2020. 8. 18 / 수정완료일: 2020. 11. 16 / 게재확정일: 2020. 11. 25

